

# 논문

## 李晩燾의 生涯와 響山古宅 소장 典籍에 관한 研究

안동대학교 중앙도서관  
윤동원

### < 목 차 >

1. 들어가는말
2. 研究資料
3. 李晩燾의 生涯와 現實認識
4. 響山古宅 典籍의 分析
5. 主要 古文書 및 古書 考察
6.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향산 이만도의 가문에서 家傳되고 있는 고문서 및 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고문서류를 통해서 보면 향산가의 학문세계를 통한 현실 인식과 대응자세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극한적 민족모순의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그들의 고뇌와 향산가의 생활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서는 이만도와 그의 후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들도 적지 않아 상당한 학문적,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 안동, 이만도, 향산, 고서, 고문서, 고전적

〈Abstract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lassical books and documents inherited and kept by the family of Lee, Mando with the pen name of Hyangsan. An analysis of these classical writings shows the family's perception of reality through the academic world and their response to such reality. Besides, it reveals their suffering and other aspects of their everyday life which they had while finding ways of getting over the extremely hard times, when Japan was about to occupy the Joseon Dynasty. So these materials are regarded as historically important. There are a large number of documents directly related to Lee, Mando and his posterity, which are evaluated as assets of considerable academic and cultural value.

## 1. 들어가는 말

響山 李晚燾(1842~1910) 가문은 퇴계의 학맥을 이으며 儒學으로 명성을 떨친 명문가이면서 근세에는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가문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가문이다. 배출된 독립유공자를 살펴보면, 李晚燾, 李晚燿, 李中業, 金洛, 李丕鎬, 李東欽, 李棕欽, 李源一 등이다. 이만도는 1895년 일제가 주도한 민비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저항하여 禮安에서 을미의병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게 되자 단식으로 맞서다가 결국 24일 만에 절명 순국하였다. 그의 아들인 中業은 「唐橋檄文」을 작성해 안동, 상주, 봉화 등지의 장터에 내다 붙이며 경북 북부지역 독립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매진하는 한편, 계부인 李晚燿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 파리장서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부인이자 石洲 李相龍 부인의 동생이기도 한 金洛은 예안의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견디다가 두 눈을 잃는 비극을 격기도 하였다. 향산가의 독립운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中業의 두 아들인 棟欽, 棕欽 형제가 1, 2차 유림단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또 다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sup>1)</sup>

이러한 代를 이은 항일투쟁으로 인해 향산 가문은 현재 전통적인 儒家로서 보다는 독립운동 가문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 가문의 代를 이은 항일운동은 단순한 민족적 감성이나 우연한 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대대로 전해오는 家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산 고택은 이만도이래 후손들이 대대로 살던 곳으로 원래 도산면 토계리 248번지에 있었다. 그러나 이 고택은 1975년 암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안동시 안막동 119번지로 이건하여 현재 이만도의 현손인 李東奭씨가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산 이만도의 생애와 현실인식을 살펴보고, 이 가문에서 家傳되고 있는 고문서 및 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간행된 『國學資料 目錄集: 眞城李氏 響山古宅 古典籍』의 목록을 기본으로 참고하여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http://www.ugyo.net/>)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명가고문서’의 원본과 해제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1)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2003. 國學資料 目錄集: 眞城李氏 響山古宅 古典籍, 머리말 「響山家와 古典籍」, 1쪽. 쪽수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 2. 研究資料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韓國國學振興院 所藏 『國學資料 目錄集: 眞城李氏 響山古宅 古典籍』이다. 이 목록집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향산 이만도의 현손인 이동석씨로부터 수탁한 자료를 2003년 목록집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동석씨에 의하면 향산 고택이 수몰 지구에서 옮겨오기 전만 하더라도 전해오는 고서는 3천여 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서들은 트럭까지 동원한 도둑들에 의해 두 차례나 도난을 당한 데다, 그나마 남아 있던唯一本 다수도 고택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수탁한 향산 고택 고전적은 고서 309종 987책과 고문서 20종 3,382점으로 모두 4,369점에 이르고 있다.<sup>2)</sup>

이 전적들은 이만도를 비롯하여 중업, 동흙, 潤惠으로 이어지는 가문에서 보 관하던 오던 것을 윤덕의 아들로 현재 향산 고택을 관리하고 있는 이동석씨가 문중의 동의를 거쳐 기탁한 것이다.

## 3. 李晚燾의 生涯와 現實認識

### 1) 李晚燾의 生涯

이만도의 생애를 살펴보기 위해 『眞城李氏族譜』 및 『眞城李氏晚花公世譜』를 통해 이만도의 직계 가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이만도의 연보를 小略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 1842(1세) : 경상도 순흥부 난곡리(현재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에서 출생
- 1860(19세) : 權承夏, 權璉夏 형제의 문하에서 수업
- 1866(25세) : 庭試 장원급제, 성균관전적, 병조좌랑, 사간원정언 역임
- 1869(28세) : 홍문록에 선임, 홍문관부수찬·교리 제수
- 1872(31세) : 사헌부장령, 충청도 장시도사, 사헌부지평, 통례원 우통례 역임
- 1873(32세) : 병조정랑, 홍문관응교 겸 지제교, 경연시독관, 춘추관 편수관, 중학교수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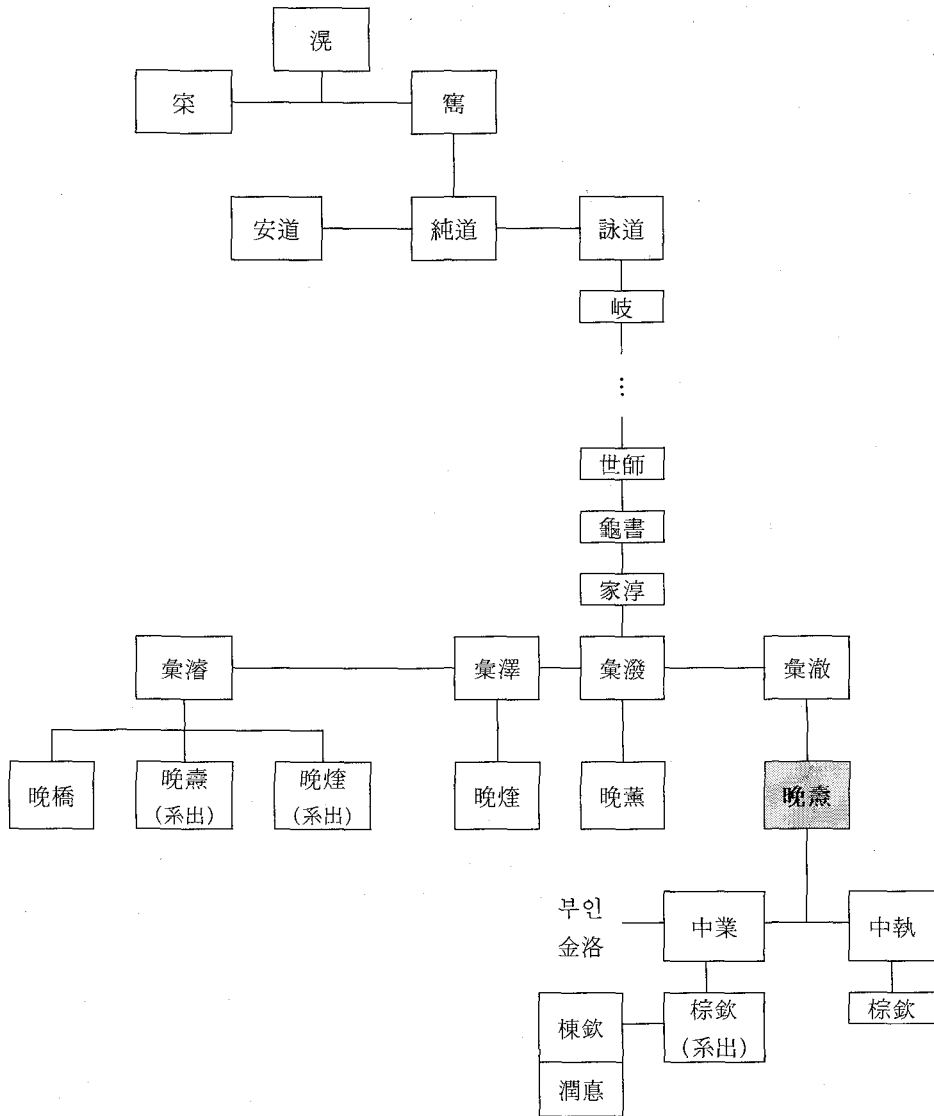
2) 한국국학진흥원 국학부. 2003. 위의 논문. 11.

3) 宋相燾. 1971. 「騎驪隨筆」,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75-179.

- 1875(34세) : 홍문관 교리가 되어 고종의 명으로 「禮記註疏」에 ㅅ를 달다.  
 1876(35세) : 崔益鉉 상소 사건으로 執義 삭탈, 梁山郡守 제수, 재직시 『梁山郡誌』 편찬  
 1882(41세) : 홍문관 수찬, 통정대부 공조참의, 승정원 동부승지 제수  
 1888(47세) : 『眞安世稿』 편술  
 1890(49세) : 『要存錄』 편차  
 1894(53세) : 일본군경의 범궐 사건과 관련해 「擬上封事疏」 草  
 1895(54세) : 단발령이 내려지자 倡義하여 禮安 의병장 추대  
 1902(61세) : 『家禮補注』 편차  
 1905(64세) : 「請斬五賊疏」 草  
 1907(66세) : 순종이 즉위하자 가선대부에 승자  
 1910(69세) : 자헌대부에 승자, 9월 8일 단식으로 순국

이만도의 자는 觀必, 호는 향산 또는 直齋이며 본관은 진성이다. 1842(헌종 8)년 1월 28일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한 아버지 李彙濬과 어머니 야성 송씨 사이에서 외가인 순흥 蘭谷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이황을 배출한 명문가로서 영남사림의 존경을 받아왔으며, 이만도는 이황의 11세손이 된다. 뒤에 통덕랑을 지낸 계부 彙澈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出系하여 가업을 승계하였다.

홍문관 응교를 지낸 조부 家淳이 유벽한 곳을 찾아 세거의 마을인 예안 土溪로부터 난곡리에 옮겨 살았는데, 이만도는 난곡리에서 유년시절을 지내고 15세 되는 해에 아버지가 문과에 급제하면서 다시 고향인 토계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 1866(고종 3)년 25세로 정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전직, 병조좌랑, 사간원정언, 홍문관수찬을 거쳐 1872(고종 9)년 사헌부지평에 올랐다. 벼슬에 있으면서도 꾸준한 讀書琢磨로 한결같이 자아완성에 정진, 經筵에서는 매양 임군의 마음을 감발시켜, 君德을 기르는데 성력을 다했다. 이 무렵 오랜 외척의 세도로 기강이 무너지고 사나운 벼슬아치들의 苛斂誅求로 민생이 피폐된데다 가 연신 열강이 집적거리는 등의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나라의 병이 이미 골수에 깊어 있었다. 이만도는 가물거리는 나라의 운명을 근심하여 부패한 조정의 권신을 규탄하고 임금을 直諫함에 거리낌에 없었다 한다.



1873(고종 10)년 홍문관응교 겸 지제교, 경연시독관, 춘추관 편수관, 중학교 수를 지내고, 1876(고종 13)년 병조정랑을 거쳐 사헌부집의가 되어 일본과의 수호조약을 반대하다가 화를 입은 崔益鉉을 변호한다 하여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되었으며, 이 해에 식년 시관이 되어 수석시관의 부정을 물리쳐 인재선발에 공정을 기하기도 하였다. 그 해 11월 외직으로 옮겨 梁山郡守에 부임했다. 그해에 모진 흉년으로 굶주림이 심했는데, 향산은 녹봉에서 900량을 내놓고, 관내 넉넉한 집들에서 2천량을 거두는 한편, 社倉米 500석을 아울러 飢民을 구제하고, 재해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부세를 감면하는 등으로 밝은 다스림을

렸으며, 그 이듬해엔 풍년이 들어 백성의 살림이 안정되어 향교를 중수하여 교학을 진작시키고, 공청을 중건하며 연무장을 수리, 무예 수련을 장려했다.

37세 되는 1878(고종 15)년 7월 사헌부집의로 전임되었으나 사양하고 향리에 물러왔다. 이어 응교, 부수찬에 임명되었으나 그대로 향리에서 저술과 강학으로 수년을 지내고 41세 되는 1882(고종 19)년 수찬에 복직되어 왕세자 嘉禮에 참석하고 百官을 대표하여 賀箋을 지어 올렸으며 그 해 3월에 통정대부 공조참의가 되고 4월엔 庭試代讀官이 되었으나 이때엔 각각으로 다급해 가는 내외환으로 나라의 운명이 기울대로 기울어 결연히 벼슬길을 청산하고 표연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해 6월에 군란이 일어, 북새통에 명성왕후 민씨가 잡적되고,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는 등 정세가 매우 어수선하여 이만도는 여러 차례 시정에 대한 적절한 疏를 올렸으나 상달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0여년에 걸쳐 여러 번 소명이 있어 동부승지, 경연참찬관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세상이 어수선하여 다시 나설 뜻이 없기에 나라 형편을 탄식하며 그대로 향리에 숨어 후진을 가르치며 산수를 벗하여 어두운 심회를 달래었다.

1894(고종 31)년 6월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攻守同盟에서 우리의 자주독립을 밝힘과 함께 내정의 혁신을 단행했는데, 이만도는 ‘이는 오로지 속 검은 왜놈에게 우롱됨이라’하여 즉시 그 불가함을 상소했으나 이른바 개혁을 실시한다면서 朝臣의 상소를 금했으므로 상달되지 못했다. 이듬해 8월 명성왕후가 왜적에게 시해되자 이만도는 통분함을 견잡지 못하여 상복을 차리고 日月山 국사봉 마루에 올라 서울을 향하여 통곡을 마지않았으며, 12월 나라의 원한을 씻고자 의병을 일으켜 대장에 추대되었으나 모인 장정이 군사훈령이 전혀 없는 선비와 농민인데다가 장비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오합지졸이었다. 미처 대오도 정비되기 전에 京兵에게 安東陣이 무너짐과 함께 의병을 해산하라는 왕명이 내려 군사를 흩어버리고 말았다.

64세 되는 1905(고종 42)년 11월, 왜군이 궁성을 포위하고 조정을 협박하여 이른바 보호조약을 꾸며 발표하매 朝野가 온통 격앙되어 온갖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시종무관 閔泳煥, 특진관 趙秉世, 찬정 洪萬植, 전 대사헌 宋秉璫 등 憤死하는 이가 속출하고 사방에서 다시 의병이 일어나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는데, 이만도는 곧 서울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항쟁코자 했으나, 마침 심한 중기로 인하여 불편함 몸이어서 五賊臣을 극형에 처하고 보호조약을 철회하라는 疏를 써서 맞아들 中業을 시켜 올리게 하고 고향 마을을 떠나 우분 강개하여

죄인으로 자처, 산골짜기를 전전했다. 1907(융희 원)년 8월 가선대부, 1910(융희 4)년 자헌대부에 올랐으나 이미 왜적의 손아귀에 움켜진 조정은 관작으로 회유의 미끼로 삼으려 했던가 보지만, 日月의 빛을 잃는 상황에서 그런 벼슬 품계쯤은 도리어 울분을 더했을 뿐이리라.

1910년 8월 22일 빗어진 國辱의 변보를 듣게 된 이만도는 온 종일 목을 놓아 울부짖고 先塋에 올라 통곡으로 하직을 고하고 나서 저물녘에 靑邱村(예산면 인계리)에 있는 재종손 綱欽의 초당을 찾아 결연히 끼니를 끊었다. 그 이튿날엔 遺疏를 초했으며, 9월 5일 곡기를 끊은 지 이미 20일, 기력이 탈진하여 의식조차 잃은 듯 눈을 감고 누워있던 향산이, 일본 헌병이 달려와 강제로 음식을 먹이려 하자 벌떡 일어나 크게 꾸짖으니 위풍이 서릿발 같고,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려 헌병이 움츠러져 물러갔다. 그 이튿날 아들에게 遺戒를 남기고 식음을 끊은 지 24일 만인 9월 8일 조용히 숨을 거두니 향년 69세였다. 6년 뒤인 1816년 문집을 간행했으나 왜경이 版木을 불사르고 墓碑도 깨뜨려 버려 순국 60주년 되는 1970년에 다시 세웠다.<sup>4)</sup>

이만도 집안은 구한말 공동체가 붕괴되는 위기를 맞자 3대에 걸쳐 목숨과 재산을 내놓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보여준 양반 가문이다. 이만도 가문은 3대에 걸쳐 내리 문과급제를 배출한 명문이었다.<sup>5)</sup> 이만도의 조부는 글 잘하는 선비들이 가는 흥문관 응교를 지냈으며, 아버지는 성균관 대사성을, 본인은 동부승지를 지냈다. 조부 대부터 본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급제는 대단한 영광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자 그는 잘 나가는 양반을 버리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바뀌었다. 1896년에 봉기한 禮安 의병대의 대장을 맡았고, 1910년 합방에 이르자 단식을 감행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 李晚燾의 現實認識

안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퇴계종택 마저 불타 버리는 참상을 겪으면서 그는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공동체가 절단 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양반이 숨을 쉬고 살아 있다는 현실을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겼던 것 같다. 죽는 방법은 단식이었다. 음독이나 할복에 비해 단식은 단번에 죽지 않고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방법이라서 실천에 옮기기가 가장 어려운 자살방법이라고 일컬어진다. 단식은 특히 주변 가족들이 어렵다. 당사자는 죽기 위해서 꼭

4) 宋志香. 1983. 『安東鄉土誌(下)』, 772-775.

5) 문과급제자는 世師, 家淳, 彙濬, 晚燾, 晚燧이다.



기를 일절 끊고 있는데, 가족들은 한쪽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만도의 단식 기간은 무려 24일이었다. 단식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자 각지에서 친척, 제자, 동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간곡하게 만류했지만, 그의 뜻을 굽힐 수 없었다. 단식 5일째에는 집안의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단식현장에 모였다. 그는 손자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왼쪽 엄지손가락을 펴지 않고 오므리고 있었다. 과거에 급제할 때 까지 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가 과거에 급제한 후에야 비로소 엄지손가락을 폈다.<sup>6)</sup> 너희들도 寸陰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라”는 당부를 남겼다.<sup>7)</sup> 죽어 가는 현장에서 그런 당부를 들었던 손자들은 과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이만도는 찾아오는 제자들과 經典들을 논하기도 했고, 친구들과는 일제의 야만성을 비판했다. 집안의 남자들에게는 자신의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하라고 유언하였고, 여자들에게는 부도(婦道)와 함께 집안 살림을 잘 이끌어 가라고 당부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담담하게 주변의 일들을 정리하면서, 선비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던 양반의 죽음은 안동의 명문가 선비들에게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안동독립운동사에서 큰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김대락(金大洛;1845~1914)과 이상룡(李相龍;1858~1932), 김동삼(金東三;1878~1937)이 눈 내리는 엄동설한에 남부여대(男負女戴)의 행렬을 이끌고 만주벌판으로 떠나게 된 계기는 바로 이만도의 죽음이었다. 이 때의 만주행은 양반으로서의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함을 의미한다. 그의 죽음은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장남인 이중업(李中業;1863~1921)은 을미의병 때 이미 아버지를 따라 의병에 참여했고, 1917년에는 대한광복회 총사령 朴尙鑣이 이중업의 집에 은신해 있을 정도로 광복회 활동에 깊숙이 참여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는 金昌淑과 함께 주도적으로 ‘파리장서’(巴里長書) 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독립운동은 이중업 대에서 끝나지 않고 손자 대에까지 이어졌다. 이중업의 아들인 이동흙(李棟欽;1889~1967)과 중흙(棕欽;1901~1975) 형제는 군자금모금 운동인 제2차 유림단사건(儒林團事件)에 참여했다. 이때 각 문중을 순회하며 모은 군자금은 결국 상해의 김구 선생에게 전해져 의열단원을 양성하는데 사용되었다. 1926년 나석주(羅錫疇) 열사가 서울 을지로 입구에 있던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외환은행 본점자리)에 폭

6) 『響山文集』 附錄 卷3 「年譜」, ‘自是 蓋以立揚自勵 屈佐搢志誓…乃伸之’

7) 趙東杰. 1998. 「響山 李晩燾의 독립운동과 그의 遺志」.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한국민족주의의 성장과 독립운동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18.

탄을 던지는데 사용된 자금은 이때 모은 군자금이었다. 제2차 유림단 사건으로 인하여 동흙, 종흙 형제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했다.

이만도는 어릴 적에는 경전의 口誦에 어눌한 면모를 드러내는 등 기대만큼의 자질을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오히려 자라면서 자극제가 되어 학문에 남다른 열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한다<sup>8)</sup>. 15세 때 부친이 과거에 급제한 것에 자극을 받아 자신도 입신양명을 통해 경륜을 펼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과거공부에 매진했다. 25세 되던 해인 1866(고종 3)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다.<sup>9)</sup>

이 같이 그가 과거를 통한 현실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은 일차적으로 가문의 긍지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지만, 자신이 확립한 현실인식과 대응방향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뒤에 그는 관직에 진출하여 경연에 참석했을 때 고종과의 대화 도중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知와 行에 있음을 피력한 바가 있다. 그에 의하면 무슨 일이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법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수레의 본체와 바퀴, 새의 몸통과 날개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학문보다는 현실의 이해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는 관료지향형의 입장이나, 현실을 도외시하고 학문의 천착에만 매진하는 처사지향형의 입장 모두를 배격하고 학문의 현실적용을 위한 참여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sup>10)</sup>

1870(고종 7)년 2월 8일 조강에 참석했을 때도 과거 그의 선조인 이황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宣祖에게 성군이 되는 방법을 제시한 『聖學十圖』를 올리며 첨부한 筓子에서 思와 學을 제일 첫머리에 두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것들이 전혀 별개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학문이 없는 思惟는 관념적 사변성에 매몰되어 합리적 실용성을 보장할 수 없고, 사유가 없는 학문은 현학적 지식에 만족하여 유용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뒤에 그가 보여주게 되는 일련의 현실대응 방식은 단순한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유를 전제로 한 학문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과거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9세의 나이로 權璉夏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의 심화에 더욱 열성을 보이게 되는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sup>11)</sup>

8) 『嚳山文集』, 附錄, 卷2. 「家傳」, 「既上學 口鈍艱讀 又乏誦才 外若遲滯…結句運思 雄渾柔格力」

9) 『嚳山文集』, 附錄, 卷1, 「行狀」, 「九月 魁擢廷試 復齋公 而父子同朝…而申申焉」

10)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2003. 위의 논문. 3.

권연하는 이만도의 장인인 權承夏의 동생으로 일찍이 定齋 柳致明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평생 동안 현실참여보다는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만 전념하였던 인물이다.<sup>12)</sup> 당시 鶴峯系가 주축을 이룬 定齋學派는 퇴계학의 적통으로 자부하며 영남에서 西厓系와 屏虎是非를 전개하는 등 역학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황의 성리학적 理氣心性論을 독자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며 현실접목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현실인식 체계는 외세의 침탈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의 모순된 상황과 맞물려 확고한 善惡, 是非 분별의 논리로 구체화되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통성의 수호를 위해 사된 외세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을 배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정척사의 현실대응 자세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sup>13)</sup>

특히 향촌유생들을 대신해 쓴 斥邪疏에서 근래 천주학 등에 의한 邪論이 횡횡하게 된 것은 그것을 압도할 ‘內水外攘’<sup>14)</sup>의 자세가 결여된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그것은 ‘崇儒重道’<sup>15)</sup>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그 기능을 담당했던 서원의 훼손은 잘못된 조치로서 시급히 복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척사 위정의 확고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sup>16)</sup> 더욱이 그는 사헌부 집의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1876년 일본대사인 漂田清隆이 개항을 골자로 한 통상조약을 강요한 것을 두고 崔益鉉이 항의한데 대해, 삼사가 승啓로 탄핵한 것의 부당성을 제기하다가 관직을 삭탈 당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만도의 일생은 불의와는 타협하기를 거부한 忠義로 일관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삶의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그가 가학인 퇴계학을 토대로 형성한 현실인식과 대응자세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다가 19세기 이후 정재학과 사이에서 지배적인 경향으로 대두한 위정척사론의 영향이 개재해 있었다. 그는 이를 제국주의의 침탈에 따른 민족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그대로 투영했던 것이다. 이는 그의 현실에 대한 깊은 사유와 연계된 학문적 자세와 함께 知行을 일체화시킨 행동규범의 산물이었다. 이것이

11)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2003. 위의 논문. 4.

12) 『嚮山文集』, 卷14. 「頤齋權公墓碣銘」, ‘伯氏祀泉公承夏 齊武藝苑 有聯璧之譽 弱冠搜羅百家 文詞大達’ : ‘在昔柳定齋先生之疾革也 李公晩燾 問 : 「門人孰優於文學者?」 定齋良久答曰 : 「其可器乎!」 時門人 極一代之選 代主牌拂者 林林 而師門之獨許如是 豈無所本而然哉!’

13) 權五榮. 1999. 「定齋學派의 형성과 衛正斥邪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10 : 138-143.

14) 안으로 역량을 길러 외세를 물리친다.

15) 유학을 숭상하고 도의를 중시한다.

16) 『訃出編』, 卷3. 「疏」 擬上斥邪疏.

결과적으로 그의 영향을 직접 받은 아들 내외인 中業과 金洛을 비롯해 손자인 李棟欽, 棕欽 형제와 동생인 李晚燿 등이 모두 항일투쟁에 참가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배운 제자 가운데 친일파로 전향한 인물이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은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sup>17)</sup>

#### 4. 響山古宅 典籍의 分析

본 연구에서는 韓國國學振興院 所藏 『國學資料 目錄集: 眞城李氏 響山古宅 古典籍』에 수록된 고서의 주제별, 간행연도별, 판본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방법은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 1) 主題別 分析

주제별 분석에서는 총 309권의 내용을 『四庫全書』의 四部分類法에 따라 주제별로 분석을 해 보았다.

〈표1〉 주제별 분석

주제	책수	비율(%)
經部	47	15.21
史部	73	23.62
子部	28	9.061
集部	160	51.77
계	309	100

주제별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集部の 문집류가 160종으로 5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子部の 역사서가 73종으로 23.62%를 차지하고 있어 주제별 내용은 대부분 문집과 역사서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刊行年度別 分析

조사대상 문헌 309종의 고서를 간행된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간행연도별 분석

17)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2003. 위의 논문. 8.

간행연대	책수	비율(%)
1600년대	2	0.65
1700년대	9	2.91
1800년대	13	4.2
1900년대	72	23.3
2000년대	2	0.65
간행사항 불명	211	68.28
계	309	100

문헌이 간행된 시기별 분석의 특징을 살펴보면, 간행사항 불명이 211종으로 6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16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간행된 고서는 23종에 불과하고 1900년대 이후의 고서가 74종으로 파악되었다. 간행사항이 불명인 고서들 중 상당수는 필사본으로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보여 진다.

### 3) 板本別 分析

#### 〈표3〉 판본별 분석

판본별	책수	비율(%)	비고
木板本	80	25.89	
木活字本	22	7.12	
石印本	47	15.21	
新式鉛活字本	18	5.83	
影印本	17	5.5	
拓本	3	0.97	
筆寫本	94	30.42	校勘本 포함
唐板本	27	8.74	유진본(3종) 및 袖珍本(1종) 포함
現代本	1	0.32	
계	309	100	

판본별 분석에서는 필사본이 94종으로 30.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판본이 80종으로 25.89%, 석인본이 47종으로 15.21%를 차지하고 있다. 필사본은 대부분 유일본으로 보이며, 본 문집을 간행하기 전 교감본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향산 고택 소장 고서는 여타 가문과 마찬가지로 이미 목판본 또는 석인본으로 간행된 문집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대체로 1900년대 이후에 필사된 고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5. 主要 古文書 및 古書 考察

한국국학진흥원에 수탁한 향산 고택 고전적 중 주요 고문서 및 고서들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古文書 考察

먼저 고문서는 모두 20종 3,382점으로 이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4〉 고문서의 종류

종류	점수	수록내용
簡札	2,379	
祭文	348	향산관련 84점
輓詞	229	향산관련 12점
詩文	217	重建記, 樓亭記·韻, 上樑文, 日記, 記行 등
行狀	67	墓碣, 事蹟, 事實, 遺事 등
明文	29	田畝賣買文書
上疏草	16	疏草, 時務疏, 請諡 등
通文	9	檜淵書堂, 東江書堂, 湖西儒生, 太學掌議 등
禮狀紙	9	
教旨	8	李世師, 家淳, 彙濬, 晚燾, 晚燿 등
戶籍	5	李家淳, 彙濬
所志	4	
試券	3	
告目	2	
料標	2	李彙濬 등
安葬記	2	
笏記	2	
立案	1	
望記	1	李棟欽(筆巖書院)
用下記	1	
기타	48	稟目, 契案, 座目, 墓表, 稷帖 등
계	3,382	

간찰류는 향산 고택 소장 고문서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만도를 비롯한 이중업, 이동흠이 생전에 학문적 교류관계를 맺고 있던 경향의 사림들과 주고받은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師弟 또는 父子, 祖孫 사이에 왕래한 편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향산가의 학문세계를 통한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극한적 민족모순의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그들의 고뇌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더구나 2,300여점이 넘는 간찰의 수에서 알 수 있듯이 향산가의 독립운동이 주로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문류는 이만도 등이 사망한 후 친인척을 비롯한 동문 및 후학들이 애절한 심정을 담아 작성한 것들이다. 제문과 만사는 이만도가 일제 강점에 항거해 단식으로 순국한데다 중엽, 동흡 역시 각종 항일운동 주도하다 갖은 고초를 겪는 등 충의의 가문으로서의 상징성으로 인해 그 내용들도 한결같이 남다른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어, 당시 향산가의 학문의 현실적용에 있어 안동지방뿐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 사이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다.

시문류에는 이만도 등이 평소 품고 있던 감회와 유람의 과정에서 느낀 감상을 담은 詩와 賦를 비롯해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활발한 활동과 역할을 보여주는 각종 序·跋文 및 記文, 그리고 일상뿐만 아니라 疏行 등의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상황들을 기록한 일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행장류에는 향산가의 선조뿐만 아니라 학맥으로 연관관계를 갖는 인물들에 대한 행장·유사·묘갈명 등으로 향산가의 폭넓은 학문적 유대관계와 함께 향촌사회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된다.

疏文類는 일반 백성이나 유림, 서원 등의 유림들이 문중 현안이나 유림 관련 사안을 주상에게 건의한 상소문인데, 이만도의 時務疏나 도산서원에 배향된 월천 趙穆의 시호를 내려줄 것을 청한 이중엽의 청원소, 예안현 진성이씨 老松亭에 대한 贈諡와 제향에 대해 소청한 것이며 노송정의 덕행으로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소청한 내용 등 통문류와 함께 향산가가 향촌사립의 공론을 발판으로 국가 및 향촌의 현안해결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통문류는 9종으로 (1)丙午(1906)년 太學 東班首 李源商, 西班首 韓聖烈이 관아에 통보한 문건이다. 손해익과 손취수 등이 이만도, 이병호, 이만규의 시와 발문을 두고, 망령되이 지은 것이라고 한 점에 대해 시정을 관아에 의뢰한 문건이다. 진성이씨 문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관아의 중재를 거쳐 해결을 요청한 문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한 문건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에 대한 변증이다. 실례를 일일이 들어, 이에 대한 요구 사항이 결코 무근거의 사안이 아님을 밝혔다. (2)下溪 李院長이 지례덕에 보낸 통문이

다.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의 토지 측량 결과에 대해 유림들의 거부 행사를 독려하는 글이다. 도산서원의 유래와 역사성 및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인 안동댐 건설로 인해, 유학의 본거지인 도산서원의 부속 건물과 토계 마을이 침수된다는 예보에 대해 분개했다. 이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廟宇까지 수몰되는 위험에 처해진 현실에 대해 사람들이 발기하여, 정부에 탄원하자는 증지를 모으려고 보낸 통문 형식의 문건이다. (3)壬申(1872)년 檜淵書院에서 도산서원 사무처로 보낸 공문서이다. 병오년 간에 회연서원에서 도산서원 측에게 통보한 적이 있다는 문건이다. 내용은 하계의 승지 택에서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고관대작의 인물에게 인사를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원에서는 당회를 소집하여 해당자를 발색하여 처벌하라는 요구 사항을 담아 보낸 문건이다. 奔競者에 대한 엄한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4)丙午(1906)년 도산서원의 노비 자료 문건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패악하고 인륜을 저버리는 부류에 대한 기록의 문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리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실례를 들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런 기록의 문건도 소개하면서, 이들의 비행과 악행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드러내었다. (5)丙午(1906)년 湖西의 유생 宋仁憲, 宋秉燾, 宋壽憲, 金稷洙, 金振洙, 金永觀, 李哲秀, 宋秉升, 宋欽龜, 宋康憲, 宋在星, 宋有憲, 金永旭, 金永億, 宋在容, 宋秉五, 趙冕植, 宋鼎洙 등이 연서하여 보낸 글이다. 서두에서 통문의 의의와 유래를 언급하였다.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묻고 사양에게 거문고를 배운 것 등에 대한 변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역대 성리학자들의 종유 상황 등에 대해 언급하며, 변론을 요망했다. (6)丙戌(1886)년 2월 모일에 도산서원에서 발송한 통문이다. 광산김씨 後彫堂 시호와 토계선생 시호에 대한 안건이다.

戶籍은 모두 5종으로 李彙濬과 李家淳의 호구단자 및 호적이다. 먼저 호적 (1)을 살펴보면, 이휘준의 친계와 처족의 신상명세서가 기록된 낙질의 호구단자 형식의 문건이다. 그와의 관계, 벼슬, 성명, 나이, 생년간지, 본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의 낙질된 부분에 소유저택 현황이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이어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 동생, 족제, 조카 등의 신상명세서가 기록되어 있다. 앞부분의 낙질부분을 보아 이 문건의 주인공이 이휘준 임이 판명된다. 이 문건은 다른 자료 작성 및 기초 자료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적 (2)는 호구단자로서 이가순의 친계와 처족의 신상명세서가 기록된 낙질의 호구단자 형식의 문건이다. 관계, 벼슬, 성명, 나이, 생년간지, 본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부인,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 아들 2명과 자부 2명의 신상명세가 기록되어 있다. 앞부분의 낙질 부분의 내용을 통해 주인공이 이가순 임이 판명되며, 그의 아들로 휘연, 휘준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앞부분은 일부 내용이 낙질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호적(3)은 이가순이 52세 때 작성된 저택 현황, 친계, 처족의 신상명세서가 기록된 호구단자 형식의 문건이다. 저택현황, 관계, 벼슬, 성명, 나이, 생년간지, 본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친, 조부, 증조부, 아들 휘연, 휘준 및 자부 1명의 신상명세가 기록되어 있다. 훼손이 거의 없이 잘 보관된 문건이다. 전체 문건 판독에 지장이 없다. 문건의 좌측 상단에 부사의 서압이 기록되어 있으며, 좌측 하단에는 관인이 찍힌 채 보관된 문건이다. 좌측 하단에는 소유 노비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거노비는 2명이며 외거노비는 영주, 예천, 용궁, 영양 등지의 10명이다. 노비는 성명, 나이, 그 노비의 부모 신분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호적(4)은 이가순이 55세 때 작성된 저택현황, 친계, 처족의 신상명세서가 기록된 낙질의 호구단자 형식의 문건이다. 저택 2채의 소유현황, 관계, 벼슬, 성명, 나이, 생년간지, 본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 처, 생부, 생조부, 생외부, 아들 2명, 자부 2명의 신상명세가 기록되어 있다. 일부 훼손이 있는 문건인데, 왼쪽 하단부가 훼손되어 글자 판독이 불가능하다. 증조부와 외조부의 관력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호적(5)은 이가순이 76세 때 작성된 저택현황, 친계, 처족의 신상명세서가 기록된 일부 낙질의 호구단자 형식의 문건이다. 저택현황, 관계, 벼슬, 성명, 나이, 생년간지, 본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친, 조부, 증조부, 아들 휘준, 휘택, 휘길, 휘철 및 자부 4명의 신상명세가 기록되어 있다. 일부 훼손이 있는 문건이지만 전체 문건 판독에는 지장이 없다. 문건의 좌측 상단에 부사의 서압이 기록되어 있으며, 좌측 하단에는 관인이 찍힌 채로 보관 상태가 양호한 문건이다.

禮狀紙는 혼인과 관련하여 納采, 問名, 涓吉, 納徵의 절차를 밝으면서, 사례하는 마음을 담아 보낸 글이다. 崔翰基, 李錫澄, 李義頊, 李民浩, 李彙寧, 李晩燾, 李彙教 등 9명의 예장지가 있다.

教旨는 총 8건인데, 이만도와 관련된 것이 3건으로 通政大夫工曹參議(1882년), 通訓大夫梁山郡守(1894년), 從二品嘉善大夫(1907년)가 있으며, 李晩燾와 관련된 것이 1건으로 啓功郎 平常署直長(1883년), 李家淳과 관련된 것이 1건으로 通訓大夫行弘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試讀官春秋館編修官(1838년), 李世師와 관련된 것이 1건으로 弘文館副修撰(1737년), 淑人 권씨를 淑夫人으로 내린 칙

첩 1건(1882년)이 있다.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고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첩의 「柏洞書堂契帖」은 백동서당의 학동들의 명단과 수입 내역을 기록한 문건이다. 명단은 李中業, 李中肅, 李時羽, 李中傳, 李用鎬, 李中馥, 李環祥, 權道河, 李憲鎬 등이 다. 명단 뒤에 생년 간지를 기록하고, 경인(1890)년 정월부터 수입을 기록했다. 을미(1895)년 정월에는 45냥 3전의 수입 기록이 있다. 수입 액수 기록 뒤에 수입처도 기록했다. 지출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낙질본으로서 이 문건 전후로 지속적인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後勉稷」은 후학을 권면하기 위한 모임 결성에 따른 계첩이다. 총 지면은 16면이며, 97명의 계원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명단의 기록 방식은 성명, 자호, 생년 간지, 본관, 현 거주지로 정리되어 있다. 계원을 성씨별로 보면, 경주최씨, 오천정씨, 문화류씨, 제주고씨, 재령이씨, 아산장씨, 안동권씨 등인데 외부 인사들의 비중이 높다. 계에 따른 규약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계원의 명단 기록에만 충실한 문건이다. 「契案」은 追入契員의 명단으로 丙辰(1916)년에 작성된 것이다. 손씨 문중 인사들의 명단과 字 및 출생년도, 거주지를 상세히 적어 보낸 문건이다. 손씨 문중 인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孫晉喆, 孫晉安, 孫晉晁, 孫榮翼, 孫秀卓, 孫秀燁, 孫秀道, 孫晉瑩, 孫晉七 등이다. 계원의 명단을 정리하면서 보낸 문건이다. 기타 「信可稷文簿」, 「信可稷帖」, 「栗里稷名帖」, 「嚮山稷」 등 문중 계 조직과 연관된 문건이다. 계원과 규칙, 수입, 지출 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다.

「甲子九月式年會試榜目」은 갑자(1864)년 9월에 실시된 식년회시 합격자의 명단을 기록한 문건이다. 「講議疏廳日錄」은 계유(1873)년 5월의 유교경전 강의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것이다.

「陶山書院庶類事變時日記」는 갑신(1884)년 11월에 庶孽소통에 관한 주문이 당도했고, 이하 그 경과 및 내력 등에 관해 기록한 문건이다. 장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통문에서는 서얼소통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어 서원의 당회가 소집된 경과를 기록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당회의 기록이 있으며, 서원원의가 조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유림들의 연서로 상소문을 올린 경과나 虎溪書院 서류들의 통문 도착 경위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가운데에는 서얼소통의 정당성을 질서정연한 논리로 서술한 글이 실려 있다. 그리고 유생들의 의견을 개진한 부분도 있다.

「婦人門」은 부인병에 관한 여러 사항과 처방 등에 대해 기록한 醫書의 일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두에서 부인병은 일반 남성의 성인병에 비해 훨씬 다루기 어렵고, 처방 역시 다양하다고 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성품과 기질이 세미하고 편협 되기 때문에 병의 정도가 더욱 깊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인병의 여러 종류를 형태별로 정리했다. 부인병의 종류와 병인 등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살인은 쉬워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고 정의했다. 이어지는 문건에서는 약재를 설명했다. 증세에 따라 약재를 적절히 처방하여 병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일반식용 식물 및 야생초 등이 약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민간처방에 따른 처방도 가미시켜 정리한 것 같다. 이 문건은 근거 있는 의서 등을 참고로 하여, 부인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증세 및 처방전을 정리한 것이다. 「治疹方」은 홍역과 두창 등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기록한 문건이다.

「心經發揮考異刊役時事實」은 심경에 대한 해석의 난해한 부분과 해석상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다. 교정과 세세하게 다룬 점이 치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찰을 한 문건으로 처리한 것이 있는데, 안부와 근황에 대해 묻고 답한 글이다. 부분적으로 道心과 人心에 대해 성리학적 사유에 기반 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어 맹자의 진심장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특정 문구를 들어 질의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 성리학 관련 서책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자문한 흔적이 많은 문건이다. 간찰 형식을 빌려 성리학적 사유를 질의한 문건이다. 「心經疑義」 역시 『心經』 가운데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두건의 고문서는 성리학적인 사유가 담겨 있다.

「運石時日記」는 퇴계의 묘갈을 다시 세우는데 지출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석물 운반시에 지출된 내역을 기록한 문건으로 서두에 甲辰(1904)년 3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공사의 추진 과정과 공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문중의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 및 일기체로 추진 과정도 상세히 적어 두었다. 재정 수합 경위나 인부 현황 및 일기 변화에 따른 공정 상황 진척 등도 기록했다. 단순한 재정 기록의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기록의 형태인 문건이다.

이외에 明文類 등도 향산가가 소유하고 있던 전답의 거래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 고문서들은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 향산가의 항일운동과 생활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 2) 古書 考察

향산 고택의 주요 고서를 살펴보면, 이만도의 저술은 그가 이미 자신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을 수시로 수집하여 『訥出編』으로 엮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訥出編自序」를 남기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이 자서에서 문장이란 道를 담는 그릇으로 도가 결여된 문장은 없는 법인데다, 程朱 이후 도의를 밝힌 사람들의 전기를 알아야 공자 이래 ‘述而不作’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으며, 말과 생각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 항상 반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소 배운 것을 적어 둔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自省으로 삼기 위해 정리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그자 직접 만든 『인출편』의 草本은 전하지 않고 있다. 자서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여기에는 그의 저술뿐만 아니라 선대의 저술 가운데 귀감이 될 만한 것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전하고 있는 『인출편』 필사본 20책은 초본을 필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만도가 저술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문집을 편찬하기 위해 항목에 따라 새로이 분류하여 精書한 필사 初矯本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본을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라 하겠다.<sup>18)</sup>

그의 문집인 『향산문집』은 1916년 조카인 이증철과 제자인 李綱鎬 등이 편집하여 목판본 21권 11책으로 간행한 뒤, 1933년 별집 6권을 포함해 재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집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疏의 「擬上封事」는 1894(고종 31)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의 흥계를 폭로하고 오로지 전통적 우호국인 청나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 긴밀히 하여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며, 「請斬五賊」은 1905년 을사조약에 찬성한 오적의 죄상을 춘추대의에 입각하여 엄히 성토했고 그들을 처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위정척사의 우국충정을 담고 있다. 「經筵講義」는 1869년 8월 7일부터 1875년까지 고종을 모시고 함께 經筵에서 經義를 토론한 내용으로 저자의 경학 사상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잡저의 「宋鑑瑣論」은 『宋史』 중에서 역사의 귀감이나 경계가 될 수 있는 역대 제왕, 신하, 환관, 난신적자 등에 대한 단편적 편린들을 모아 논은 것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禮疑筭錄」은 주자의 『家禮』에 의한 冠婚喪祭의 시행절차상의 심스러운 점을 간추리고 풍속에서 고쳐야 할 문제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와 함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예설에 관한 참고자료로 평가된다. 「東國文獻錄從遊私淑辨」은 친구 金鳳熙가 소장한 책 중 선조 李滉

18)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2003 위의 논문 9쪽.

과 曹植이 徐敬德을 중유한 것으로 기록하고, 이황이 사숙하였다는 기록에 대한 변론이다. 즉, 主氣的인 서경덕과 主理的인 이황 사이의 학문적 견해의 차이가 분명한 점을 들어 후인의 잘못된 기록임을 밝힌 것이다. 이밖에 「讀書法示兒孫」은 자손들에게 독서하는 차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글이다.<sup>19)</sup>

향산 고택 소장 고서는 여타 가문과 마찬가지로 이미 목판 또는 석인본으로 간행된 문집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문집만으로 향산가의 전반적인 학문경향과 교류관계 등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退溪先生書節要節擬』를 비롯해 『退溪先生別集草』 등 한말 퇴계학의 재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향산가가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필사본 및 교감본 등 주목되는 유일본 자료들도 다수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만도가 직접 서문 또는 발문을 쓴 『敬庵集』과 『石溪集』, 『柏谷逸稿』 등 향산가의 학문적 연원이 되는 퇴계학과 관련 문집뿐만 아니라 『南冥集』을 비롯해 『寒岡新續九條辨』과 朴敏의 『凌虛集』, 吳滢이 저술한 『東史纂要』 등 경상우도 士林의 저술도 다수가 남아 있어 학맥 또는 혼맥을 통한 그들 가문의 학문적 성행 내지 범주의 일단을 단편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sup>20)</sup>

이외에도 필사된 유일본 가운데 앞서서도 언급한 이만도의 『인졸편』 淨寫本을 비롯해 그가 단식에 돌입한 1910년 8월 14일부터 9월 8일 사망할 때까지 매일의 행적을 기록한 李綱鎬의 『靑邱日記』, 고문서이나 成冊된 『庚戌弔慰錄』, 『泗濱答孫氏門中通文』, 『通文類』, 『鄉飲酒禮』, 『鄉飲酒禮笏記』와 중국 및 한국의 귀감이 될 만한 역사적 사실들을 발췌하여 정리한 『古事類聚』, 예안출신 인물들의 행적을 소개한 『宣城人物考』, 이만도 본인이 저술한 『響山家傳』, 조부인 李家淳의 친필을 모아 정리한 『霞溪手錄』, 자손 및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쓴 『千字文』 등의 고서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 밖의 자료로는 목판본으로 된 『眞寶李氏上溪派派譜辨破錄』과 필사본으로 된 『眞城李氏庚庚子譜』, 『眞城李氏派譜』, 『八高祖圖』 등이 족보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계첩으로는 『九龍崑稷帖』, 『鼎崑臺契帖』, 『巷春堂稷帖』 등이 있다.

19) 윤동원. 2000. 『古書解題(1)』, 안동: 안동대학교 도서관. 1251-1252.

20)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2003 위의 논문 11-12쪽.

## 6. 나오는 말

향산 이만도 가문은 이황의 학문을 이으며 3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고 근세 독립 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다. 이만도의 일생은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忠義로 일관된 것이었다. 이러한 삶의 저변에는 家學인 퇴계학을 토대로 형성한 현실인식과 19세기 이후 定齋學派 사이에서 지배적인 경향으로 대두된 위정척사론이 개재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만도의 가문에서 家傳되고 있는 고문서 및 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고문서류를 통해서 보면 향산가의 학문세계를 통한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극한적 민족모순의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그들의 고뇌와 향산가의 생활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서는 이만도와 그의 후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들도 적지 않아 상당한 학문적,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여 진다.

### 《참고문헌》

『眞城李氏族譜』.

『眞城李氏晚花公世譜』.

『響山文集』.

『訥出編』.

權五榮. 1999. 「定齋學派의 형성과 衛正斥邪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10.

宋相燾. 1971. 「騎驪隨筆」,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宋志香. 1983. 『安東鄉土誌(下)』.

윤동원. 2000. 『古書解題(1)』, 안동: 안동대학교 도서관.

趙東杰. 1998. 「響山 李晚燾의 독립운동과 그의 遺志」.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한국민족주의의 성장과 독립운동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부. 2003. 國學資料 目錄集: 眞城李氏 響山古宅 古典籍』.

<http://www.ugyo.net/>(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